

보도일시 (인터넷) 2026. 8. 23.(일) 11:00
(지면) 2026. 8. 24.(월) 조간

배 포 2026. 8. 21.(금) 오후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8월24일부터 공급...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24(월)부터 9.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명태 15,700톤, 고등어 1,500톤, 오징어 1,700톤, 갈치 800톤, 조기 200톤, 마른 멸치 100톤을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공급되며,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이석진 (051-773-5447)